

영어 발달에 관한 고찰

김상훈
기초 학과

〈요약〉

현재 영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언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영어의 발전과정에서 볼 때 극히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영어를 말하는 인구는 불어, 독일어 및 서반아이의 사용인구에 비해서 훨씬 더 적었다. 그래서 영어는 오히려 이러한 언어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영어는 현재 국제적인 언어로 발전하였고 앞으로도 국제간의 교류에 있어서 공인된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영어의 성장 과정과 영어가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인정받게 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A Brief Study on the Growth of the English Language

Kim, Sang-Hoon
Dept. of Basic Studies

〈Abstract〉

English is now spoken most widely in the world. Its influence upon other languages is also considerably great, but that influence has been exerted on them quite recently from the view-point of its historical development.

Until the nineteenth century, the English language was far exceeded in the number of its speakers by some other languages, such as French, German, and Spanish. And it had grown with the influences of those languages. As a result, English has become an international language and is likely to remain as the recognized medium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is thesis, I intend to trace back how the English language has grown and how it has adapted itself to the changing circumstances to be accepted as the most widespread language in the world.

I. 서론

세계 문학사상 불후의 명작을 남긴 대문호 William Shakespeare(1564~1616)가 사용하던 영어는 당시 유우럽에서 제5위에 속하는 언어였으며 그것 을 일상용어로 사용하던 인구는 약 5백만에 불과하

였다. 18세기까지도 영어는 도내 해협만 넘어서던 그다지 쓸모가 없는 언어로 간주됐으며 현금과 같이 세계적인 언어로 발전하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¹⁾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2억 이상의 인구 가 영어를 일상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그것을 모국어로 혹은 필요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게 되

었다. 이와같이 갑작스러이 팽창한 영어는 현재 복합어를 제외하고도 20단어 넘는 단어를 가진 세계에서도 가장 어휘가 풍부한 언어로 발전하였다.

영어가 오늘과 같이 세계적인 언어로 등장하게 된 이면에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영어 자체의 언어로서의 본질과 그 성장과정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영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그 성격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본 론

원래 영어라고 하면 웨일란 민족중의 Angles, Saxons 및 Jutes의 3부족이 사용하던 언어를 말한 것인데, 그것은 이 3부족의 언어가 혼합된 것으로서 단일캐서리의 언어는 아니었다. Anglo-Saxon족이 대륙에서 영국으로 이주 경착륙에 따라 그들의 언어에도 차츰 변화가 생겼는데 Humber강 이북 지방의 Northumbrian Dialect와 Humber강에서 Thames강 유역에 이르는 Mercian Dialect, Thames강 남동부지방의 Kentish Dialect, 그리고 남서단의 West Saxon Dialect 등 4종으로 대별할 수 있었다.⁽²⁾ 유명한 Alfred대왕(871~879)의 문화 강책으로 West Saxon Dialect로 기록된 문헌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서 고대 영어 연구상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고대 영어에 있어서는 나전어가 거의 쉬이지 않았으나 Norman Conquest이후 나전어와 불어가 대량으로 혼합되어 고대 영어의 83%가 소멸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남은 단어를 현재 일상 용어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들이 문장을 구성할 때 나중에 라틴계에서 들어온 말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인상을 주게 되므로 이것을 플라 써서 그 효과를 노리는 작가가 현대에도 많이 있다. 예컨대 Hearty Welcome을 받는 편이 Cordial Reception을 받는 경우보다 너 징다음고 히물이 없게 느껴진다. 그 까닭은 전자가 순수한 Anglo-Saxon이었는데 반하여 후자는 불어에서 흡수된 것이기에 세련된 느낌은 있으나 고답적(高踏的)이고 형식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Anglo-Saxon으로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을 약간 추리보면, man(men), wif(wife, woman), cild(child), hūs(house), benc(bench), gær(sgrass), leāf(leaf), drinca(drink), slæpan(sleep), libban(live), heāh

(high), etān(eat)등 주로 일상 용어에서 가장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ANGLO-SAXON 영어 시대를 간단히 말해서 고대 영어시대(450—1150)라고 하는데, 이 때의 영어는 다른 인구어(Indo-European Language)와 하등 다른 없이 굴절(Inflection)이 심했음으로 이 시대를 The Period of Full Inflection이라고도 한다. 그 특성을 살펴보자면 우선 문법상으로 봐서, 명사나 형용사는 격과 수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인칭대명사에 Dual(two of us, two of you)인칭이 있었고, 성(Gender)은 남성 여성 중성이 있었으나 비론리적이어서 자연성과 반드시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자면 sunne(sun)은 어성이고 mōna(moon)은 남성인가 하면 wifmann(woman)은 남성이고 wif(wife)는 중성이었다.⁽³⁾ 동사는 현재와 과거 두 시제를 가졌고 수동과 능동의 구별이 없었으며 강변화와 약변화가 있었는데 현대영어에서 전자는 불규칙 동사가 되고 후자는 규칙동사로 변하였다. 역률을 들면 다음과 같다. 강변화 동사는 drifan(drive) drāf-drifon-drifan, feallan(fall) fēoll fēollen feollen과 같이 변했고 약변화 동사는 lufian(love) lufode lufod, libban(live) lifde lifd로 변했다. 고대 영어는 어휘가 풍부하였으며 인구어(印歐語)의 특징의 하나인 Self-Explaining Compounds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God에서 파생된 복합어⁽⁴⁾만 찾아봐도 godcund(divine), godcundness(divinity), godferht(pious), godhād(divine nature), godmægem(divinity), godsyclid(impiety), godsyclidg(impious), godsibb(sponsor), godspell(gospel)과 같이 많이 있었으나 현대 영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복합어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상실되고 말았다.

다음에는 영어 발달에 미친 외래어의 영향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로 Celtic Influence를 들 수 있는데, 영국 본토의 원주민인 Celt족은 Anglo-Saxon족보다 문화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서로 약 700년간 접촉하면서도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현재 지명(Kent, Devonshire, Cornwall, Winchester etc.) 도시명(London) 강 이름(Thames) 등을 제외하고는 약 20여종의 단어가 남아 있을 떄이다. 그 중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Dust Bin의 Bin, Craggy Hill의 Crag 등이며 기타 Ass, Bannock, Brock 등이 있다.⁽⁵⁾ 두 번째로 Latin Influence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세분하면 Anglo-Saxon족이 대륙에 있은 때(The Zero

Period) 받은 영향, 영국에 도래한 후 CELT족을 통해서 받은 영향(The First Period), 그리고 로마 문화와 직접 접촉함으로써(The Second Period) 받은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Anglo-Saxon족이 대륙에 있을 때 전쟁이라든가 통상이란 수단을 통해서 라틴의 영향을 받은 결과 약 500내지 600개가 들어 왔다고 추산되는데 현재 확실히 남아 있는 것은 약 50개 밖에 안 된다. 이것은 주로 군사나 통상에 관한 용어인데 예를 들자면 Camp(Battle), Wall, Street, Monger, Pound, Wine, Flask, Kettle, Pillow등이 있다. 이 때에 Kettle이나 Pillow란 말이 들어 온 것을 보면 당시의 Anglo-Saxon문화 수준을 짐작할 수가 있다. Discus란 나전어는 이 때에 들어 와서 Dish로 변하였고 나중에 재수입되어서는 Disc로 화하였다.⁽⁶⁾

Latin Through Celtic Transmission (Latin influence of the First Period)에 있어서는 주로 지명 600개가 남아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Chester, Dorchester, Manchester, Winchester, Lancaster, Doncaster, Gloucester, Worcester등이며 Port, Mount, Tower도 이 때 수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CELT족이 대륙에서 전녀 온 Anglo-Saxon족보다 열세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 했다.

St. Augustine and His Forty Monks가 로마법 왕의 명에 의하여 KENT 지방으로 파견됨으로써 (597 A.D.) 약 2년 후에 영국이 기독교화 되었는데, 이 때에 받은 영향을 The Latin Influence of the Second Period라고 한다. 이 기간에 들어 온 것은 기독교와 관련된 어휘가 많은데 당시 융성하던 Monastic Learning의 대표적 인물인 The Venerable Bede가 저술한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the English People" (731 A.D.) 이란 귀중한 문헌이 그 연구 자료로서 남아 있다. 이 시기에 들어온 것을 보면 Angel, Candle, Mass, Minister, Disciple 등 종교적인 것이 태반이며 Cap, Silk, Chest 등이 있고 Pear, Radish, Oyster, Lobster등 먹는 것도 있으며, School, Master, Grammatic, Verse, Meter, Glass 등 교육 관계 용어도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이 기독교화함으로써 약 450개의 단어가 새로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100개는 너무 학술적이고 이국적인 냄새가 나서 사라지고 350개는 계속 사용되었으나 깊이 칠투하지 못 하였으며 그 일부

만이 Assimilation과 완전히 영어화하였다. 예를 들자면 Planta(LAT)가 Plant(n)로 굳어졌으며 Plant(v), Planting형태도 갖게 되었다.

8·9세기에 이르러 북부 유우럽에 있던 Norse족이 세력을 확장하여 그 위력을 흡해 연안까지 파급시켰으며 이른바 Viking Age를 이루어 영국 해안도 빈번히 침범한 끝에 1016년에는 Denmark의 Cnut왕이 영국 왕을 겸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약 25년간 영국을 통치하였는데 지금도 약 1400개의 지명이 그들의 낱말로 남아 있으며 그 밖에도 해양용어, 범률 용어 등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영국 지명에서 어미에 -by (town or farm in Danish)가 붙는 것, 즉 Whitby, Derby, Rugby, Thoresby등 600개 있으며 by-law란 말도 있고, -thorpe(village)이 붙는 것, Althorpe, Bishopthorpe, Gawthorpe등 300개가 있으며 thwaite (isolated piece of land)이 붙는 것, Applethwaite, Braithwaite등과 -toft(a piece of land)가 붙는 것 Brinsoft, Easttoft등 100개 정도 있으며 인명에서도 -son이 붙는 것 Johnson, Stevenson등은 Scandinavian이다. 이들은 문화적으로 Anglo-Saxon과 비등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Latin Influence나 다음에 나오는 Norman Conquest에 비하면 그 영향이 피상적이었으며 민족적인 방식으로 전파되었는데 현대 영어에서 사용빈도수가 가장 높은 몇 개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시기에 들어왔다는 것은 주목할만 하다. 3인칭 복수 대명사인 they, their, them⁽⁷⁾을 위시하여 both, same만이 아니라 동사에 있어서도 call, get, give, take등이 이 때 들어 왔으며 명사도 fellow, leg, root, scrap, sister, skin, skirt등 확실한 것만 찾아 봐도 약 900개는 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Scandinavian어는 고대 영어와 같은 계통의 언어인 관계로 Everyday Usage에 많이 혼합되어 대명사 부사 전치사에 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고대 영어에 있었던 복잡한 굴절(Inflection)현상이 점차 levelling하게 된 주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⁸⁾

겔만 민족의 일족인 Norman이 푸랑스의 북방에 정착한 다음 기독교화하여 불어를 받아드리고 점차 강력하여 지어 1066년에 William the Conqueror가 마침내 영국을 침략하여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정복하여 버렸다. William은 정식으로 영국 왕좌에 오른 다음 정복자로서 자기의 것을 피정복자인 Anglo-Saxon에게 강

요하여 더욱 심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불란서식 귀족 제도가 실시되어 상류층에서 는 불어를 전용하게 되고 영어는 Vernacular language로 격하되었다. Norman Conquest만 없었더라면 고대 영어가 별 다른 변화없이 그대로 계승되었을 더인데 이 때를 계기로 영어는 전혀 성격이 다른 언어로 변모해 버린 것이다. 즉 순수한 Germanic language였던 영어가 Mixed vocabulary를 가진 혼합 언어로 변한 것이다.⁽⁹⁾

그 후 약 300년 간 영국의 악대 왕은 불어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의식은 불란서식으로 집행되었다. 이에 따라 상류층에서는 전적으로 불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1204년 King John이 Normandy를 상신했을 후에도 종류 이상의 사회에서는 불어를 계속 썼으며 영어는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였다. 그러나 1362년 The Statutes of Pleading을 공포한 Henry 4세는 법정이나 관청, 학교에서 영어를 공용으로 사용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영어는 오래 간 만에 다시 헛별을 보게 되었으나 이 때에는 이미 순수한 인구어(印歐語)로부터 혼합된 어휘를 반 이상 가진 혼혈아로 변모를 바꾸었다. 우리는 이러한 혼점을 도처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오늘 날에도 초대장에는 R. S. V. P. (Répondez S'il Vous Plait)라고 써야 하며 일상 편지를 쓰는데도 Messur(for messieurs)라 써야 되니 말이다.⁽¹⁰⁾

Canterbury Tales를 쓴 Geoffrey Chaucer(1340 ~1400)가 그의 작품을 쓰는데 약 8000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중 4000이상의 단어가 Romance언어(French와 Latin)에서 유래한 것이며 현대 영어에서 사용되는 어휘도 그 약 반수는 German계등(English와 Scandinavian)이고 나머지 반수는 Romance 언어 계통에서 온 것이다.

귀족의 칭호인 Prince, Peer, Duke, Duchess, Marquis, Marchioness, Viscount, Viscountess, Baron은 모두 불어에서 왔으며 고대 영어에서 남은 것은 Earl⁽¹¹⁾뿐이며, 최고 통치자인 King과 Queen은 영어이다. Parliament는 불어에서 온 것이지만 하원의 장은 Speaker라는 영어이다. town, hamlet, hall, house, home은 영어인데 city, village, palace, mansion, residence, domicile은 불어이다. chamber, apartment가 불어인데 반하여 room과 bower는 영어이다. law란 말은 Scandinavian에서 들어왔는데 right, righteousness는 영어이고 justice, judge, jury는 불어이다. 동물이 살아서 사육

될 때에는 ox, swine, calf와 같이 영어로 날이 쓰이지만 그것이 일단 요리되어서 밥상에 오르면 beef pork, veal등의 불어로 변한 까닭은 무엇인가?⁽¹²⁾ Norman Conquest이후 폐지배족이 된 Anglo-Saxon이 아닌 가축을 땀 흘려서 길리 좋으면 지내줄이 Norman이 그것을 그들의 구미에 맞게 요리해서 먹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간단히 먹는 breakfast(단식을 그친다는 뜻)는 영어이지만 싱찬인 dinner나 supper는 불어에서 왔으며, baker, fisherman, miller, saddler, builder, shepherd, shoemaker, weaver등 서민 상대의 직업은 영어인 반면에 나고직 상류 사회를 많이 상대한다고 볼 수 있는 직업인 carpenter, draper, joiner, mason, painter, tailor 등은 불어이다. 인체의 보통 부분은 영어로 이 그대로 남아 있으나 고대영어 anleth와 steven은 불어에서 온 face와 voice에 의하여 대치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불어가 영어화함에 따라서 영어의 어미와 결합하는 것이 많이 생겼다.

Chaucer가 beauty란 말을 썼으나 그 형용사인 beautiful이란 말은 16세기 이후에 비로소 나온다. 영어의 어미인 -ship이 불어와 결합하여 companionship, courtship, scholarship와 같은 그 경사를 만들었으며 이와 반대로 영어의 어간에 -er의 어미가 붙은 것도 goddess, shortage, hindrance, thunderous등 무수히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어와 불어가 혼합 융화됨으로써 수사한 뜻을 가지면서도 서로 함축성이 다른 의미를 나누게 되어 영어를 전제적으로 풍부하게 하였다. 억반적으로 원래의 영어는 단순하며 적설 노스-그-강력한 박력이 있는 반면에 불어는 세련되고 우식한 맘새를 풍기는 수가 많다. 예를들이기 *desire*, *-exploit*(문), *spell*(영)-*enchantment*(咒), *take*(영)-*apprehend*(붙), *weariness*(년)-*lassitude*(怠) 등을 비교해 보면 곧 수긍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앙각을 다시 LATIN계와 비교해 보면

영어	불어	나전어
rise	—	mount
ask	—	question
goodness	—	virtue
fast	—	firm
fire	—	flame
fear	—	terror
	—	ascend
	—	interrogate
	—	probity
	—	secure
	—	confagation
	—	trapidation

와 같이 월래의 영어는 가장 서민적이고 불어는 문학적이며 나전어는 고급적이다.⁽¹³⁾ 따라서 상기 삼자를 적절히 융합시키면 대단히 훌륭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나 이 결합이 절 못 이루어지면 아주 어색하고 기정적인 문장이 되기 쉽다.

III. 결 론

이상과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어가 어떤 경로를 밟아서 발달 형성되어 왔는가를 그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대략 살펴 봤다. 그렇게 온갖 곡절을 겪고 수난을 면치 못했던 영어가 근대 영문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Geoffrey Chaucer의 출현으로 다시 국어로서의 면목을 되찾게 되었으며 15세기 말 경에는 지방어가 점차 정리되어 London을 중심으로 한 East midland dialect가 표준어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지방에는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었고 지역적으로 넓었으며 London의 옆에 Lincolnshire, Norfolk, Suffolk 등 문화 경제 면에서 중요한 County가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Oxford, Cambridge 양 대학이 이 지방에 위치하여 표준어를 형성하는데 학문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표준 영어의 성장을 촉진시킨 데에는 인쇄술을 수입해서 (1476년) 문학작품을 통일된 방향으로 번역 출판한 William Caxton의 공헌을 빼놓을 수 없다. 그 동안 고대 영어에 있었던 복잡한 어형 변화가 탈락 혹은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되어 갔는데 이 기간을 중세 영어 시대 (1150~1500) 혹은 The Period of Levelled Inflections라고 한다. "The Art of English Poesy (1589)"에서 Puttenham이 London을 중심으로 해서 60마일 이내 지역의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때에는 이미 표준어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Shakespeare 시대에는 전 국민의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독서를 즐길 만큼 교육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원천을 영역하는 일이 유해해서 1640년 성까지는 약 2 반 칸의 책이 발간되었다고 한다. 일반 대중이 독서를 많이 하게 되고 교통이 발달하여 상호간에 내용이 번역되었으며 특히 로비 쌍스 이후 국민적 자작심이 생겨 자국어를 아끼고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표준어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석자 간에 공통적으로 쓰여지고 학문적으로 전용하다시피 한 나전어에

서 쉽사리 벗어 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영어 자체로서도 아직 불완전한 점이 많아, 쳐지 않은 난제가 가로 놓여 있었다. 나전어로 된 학술 용어를 영어로 대치하는 문제, 나전어와 같이 표현력을 풍부하게 하려는 문제 등을 우선 손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영어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학자가 있었던 반면에 Ceceronianism을 고집하는 학자도 있어서 상호간에 갑론을박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로비 쌍스 이후 국민의 자작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서 inkhorn terms를 좋아하는 Ceceronianism을 타파하여 새로운 영어적인 위치를 써서 근대적 감각을 살리고 나전어의 절대성을 무너뜨린 학자들이 나타났다. Chapman이 Homer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고 (1598년) Wycliffe가 결단성을 발휘하여 최초로 성서를 영역함으로써 영어가 나전어나 회랑어에 대응할 만큼 훌륭한 언어임을 입증하였다. 그 결과 16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Sydney가 장담했듯이, 영어는 "세계의 어느 언어에도 못지 않은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로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500년 이후를 편의상 현대 영어 시대 (Modern English Period or The Period of Lost Inflections)라고 하는데, 이것은 1500년대의 영어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어가 똑같다는 뜻은 아니다. 그 동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굴절현상(屈折現象)이 없어짐으로써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Shakespeare의 작품이나 The Authorized Version of the Bible (1611)를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대로 간주하는 것이다. 현대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굴절 (Inflection)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격(格), 성(性) 등의 변화에 따라서 어미(語尾)가 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명사의 복수형은 fon이 foes로, kneein이 knees로, fleen이 fleas로 각각 변했으며 child-children, brother-brethren ox-oxen을 제외하고는 -s 또는 -es를 붙이는 것으로 단일화 되었다. 나전어에서 들어온 밀들도 예컨대 radius, appendix의 복수 형이 radii에서 radiuses로 appendices에서 appendizes로 점차 영어화 되어 가는 현상을 엿 볼 수 있다. 발음상으로도 외래어의 경우 그 원음을 어느 기간 유지하다가 차차 영어의 특징인 Alliteration의 영향을 받아 액센트가

두음(頭音)으로 읊겨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restauránt이 restaurant로 garágé가 gáráge로 magazine이 mágazine으로 발음되는 것 이 오줌엔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 같다.

형용사에서도 격 변화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Shakespeare 시대만 해도 "This was the most unkindest cut of all"와 같이 double comparative, double superlative를 사용한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대명사에 있어서는 2인칭 단수의 thou, thy, thee 가 사라지고 복수의 ye, your, you가 Authorized Version of the Bible에서도 확연히 구별되어 있었는데 그 후 얼마 동안 ye, you가 혼용되어 오다가 17세기 말에 가서는 you가 ye에 대치되었다. 중성 대명사도 원래는 격에 따라 hit, his, him과 같이 변했는데 남성의 his, him과 혼동되기 쉬움으로 가급적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h)it를 쓰기 시작했으며 밀음상으로 h가 탈락되어 it만 남게 되었으며 그 소유격은 일반 명사의 소유격과 analogy 현상을 일으켜 18세기까지도 it's로 쓰다가 its로 굳어졌다.

동사는 처음에 본 동사를 그대로 앞으로 가져와서 "Goes the king today?"—Macbeth와 같이 사용한 흔적이 있으며 진행형이 발달하지 못했던 것 같다. "What do you read, my lord?" —Hamlet 하던 것도 지금 같으면 분명히 "What are you reading, my lord?"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3인칭 단수 현재일 경우 동사의 어미에 s를 붙이는 것은 현대 영어에 남아 있는 유일한 굴절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남부 영어에서 telleth, giveth, saith doth 등과 같이 -th를 붙였던 것에서 유래하여 colloquial, spoken English에서 -s로 변했으며, 장차 어느 시기에 가서는 아주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학자도 있다. 강 변화 동사가 불 규칙 동사로 변하고 약 변화 동사가 규칙 동사로 변했다는 것은 이미 본론에서 언급 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 영어에서는 일 반적으로 말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간소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인데, 격변화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WORD ORDER 가 고정되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상의 모호성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고대 영어에서 볼 수 있었던 Self-explaining compounds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상실되고 말았다. 철자법에 있어서도 가급적 발음에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불 필요하거나 발음이 되지 않는 글자는 없애고 합리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을 주장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누구보다도 그들 자신이 언어는 하루 아침에 인위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빼저 리게 느꼈을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WEBSTER를 위시한 여러 학자들이 철자법의 간소화를 거듭 주장한 바 있어 그 일부만이 미국·영어에서 공식적으로 용인되어 현재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언어는 인위적으로 규제하기가 극히 힘든 것이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사정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지 정화하고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다. 영어는 오늘 날 완전히 세계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쉽게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이제까지 발달해 온 과정으로 봐서 앞으로도 쓰는 사람이 편리하게 간소화되고 합리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 만은 틀림 없을 것이다.

References

1. Otto Jespersen, Growth and Structure of the English Language p. 232
2. Albert C. Baugh,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p. 60
3. Ibid., p. 66
4. Otto Jespersen, Growth and Structure of the English Language, p. 42
5. Ibid., p. 35
6. Ibid., p. 29
7. Thomas Pyles,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English Language, p. 144
8. Simeon Potter, Our Language, p. 33
9. Henry Bradley, the Making of English, p. 86
10. Simeon Potter, our Language, p. 39
11. Thomas Pyles,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English, p. 309
12. Henry Bradley, the Making of English, p. 88
13. Simeon Potter, Our Language, p. 37

Bibliography

- Henry Bradley. The Making of English, London(Macmillan), 1904.
 Otto Jespersen, Growth and Structure of the

- English Language, Oxford(Blackwell), 1905.
- Logan Pearsall Smith, The English Language, Oxford Univ. Press, 1952.
- George Leslie Brook,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Deutch), 1958
- Albert Croll Baugh,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Appleton-Century), second edition 1961.
- Simeon Potter, Our Language, Penguin Books, 1961.
- Thomas Pyles,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English Language, McKnight, Emsley, Modern English in the Making, New York(Mac-millan), 1928.
- Albert Markwardt, Introduction to the English Language, Oxford Univ. Press, 1942.
- Robertson, Cassidy, The Development of Modern English, London(Harrap), 1954.